

# i단국

2023 Autumn

Vol. 62

안순철 교수, 제19대 총장 취임  
“단국 혁신5.0시대 열어갈 것”



죽전캠퍼스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031)8005-2031-3  
천안캠퍼스 (3111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041)550-1060-1

i 단국은 세계로 도약하는 선도민족사학, 단국대의 의지를 형상화하였고 다양한 대학 소식을 전함에 있어 지식정보화를 추구하는 대학지성의 참모습 *intelligence*, 대학문화를 총괄적으로 제공해 주는 종합정보의 기능 *information*, 구성원과 동문 모두가 단국의 울타리에선 '하나'라는 일체감을 느낄수 있는 독자성과 동일성 *identity*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FOCUS 단국

- 04 안순철 교수, 제19대 총장 취임
- 08 "바이오헬스·반도체·미래차 인재육성 박차"



발행일 2023. 9 발행인 안순철 발행처 단국대학교 미디어콘텐츠홍보처 홍보팀  
 죽전캠퍼스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031)8005-2031~3  
 천안캠퍼스 (3111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041)550-1060~1 디자인 호진커뮤니케이션즈

## TODAY 투데이 DKU

- 12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 글로벌·문화 분야 주관대학 선정
- 14 독립기념관, 범정 장형 선생 발자취 재조명
- 15 단대신문 창간 75주년 및 지령 1500호 발행
- 16 캄보디아·몽골에 전해진 진리·봉사, 해외봉사활동 다녀와
- 18 세계 최대 몽골어 사전 몽한대사전 편찬

## PEOPLE 단국, 단국인

- 19 장호성 이사장,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결단식 가져
- 20 체육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대학평가 5년 연속 1위  
씨름부, 최고 권위 '대통령기' 단체전 우승
- 21 농구부, 종별농구선수권대회 우승  
축구부 창단 최초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  
'단국대 듀오' 최석현-이승원, U-20 월드컵 4강 신화 함께 썼다
- 22 김현진 교수, '반도체 테스트' 최우수논문상  
김인호 교수, 한돈산업 발전 기여 '한돈 금상' 수여  
박재형·이승기 교수 연구팀, 인공 망막 성능 200배 높여
- 23 토목환경공학과, '탄소중립 원천기술연구' 과기부 사업 선정  
김재엽 교수, 세계 최고 수준 태양광수소 생산기술 개발  
㈜알지노믹스, 약성교모세포종 치료제 FDA 임상 1·2a상 계획 승인
- 24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최근 6년간 22명 합격"  
교원임용 시험 87명 합격  
엄혜정 양, 전국대학생 러시아어 토론회 금상 수상
- 25 변은주 양 '2023 청주그랑프리 국제댄스연맹 월드챔피언십 국내 1위'  
손세원·배준현 군, 전국대학생모의유엔회의 장려상  
경영경제대학 금융투자학회, 국제투자분석대회 우수상

## DONATION 희망단국

- 26 발전기금 소식
- 28 기부자 명단



# 안순철 교수, 제19대 총장 취임

## “단국대 혁신버전 5.0 시대 열어가겠다” ‘대학재정 확충·대학평판 제고’ 청사진 밝혀

지난 8월 26일 단국대 제19대 안순철 신임총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안 신임총장은 재임기간 중 ‘시대변화에 부응할 단국 혁신 버전 5.0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대학 중장기 발전전략인 「Dynamic Dankook 2027」을 기반으로 대학재정역량 극대화, 대학평판도 개선이라는 2가지 핵심전략을 추진하여 △교육 △연구 △학생 △산학협력 △국제화 역량 강화 △행정 △재정 등 7대 분야의 미래 과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안 신임 총장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97년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이후 기획조정실장, 비서실장, 사회과학대학장, 대학원장, 대외부총장을 역임하며 대학발전에 함께 했고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을 맡아 학회 발전에 이바지했다. 안 신임총장의 임기는 2023년 8월 26일부터 4년이다.

학교법인 단국대학(이사장 장호성)이 지난 7월 2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단국대 제19대 총장에 안순철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교수(명예·현직)·학생·직원·동문·사회인사 등 13인으로 구성된 총장 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윤형섭 전 교육부장관, 이하 총추위)는 지난 3월 대학홈페이지를 통해 총장초빙공고를 낸 후 세 차례 회의를 거쳐 7명의 후보 등록자 중 3인을 법인에 추천, 법인 이사회는 이들의 대학경영 전반의 철학과 소신, 비전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안순철 후보를 총장에 선임했다.

### 안순철 총장 주요 공약

글로벌 경쟁력 확보

단국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재정기반 확충

01 교육 | 미래형 교육 인프라 구축과 최상의 교육 경쟁력 확보

02 연구 | 지속가능한 연구 플랫폼 구축, 국제 수준의 연구 활성화 및 QS지표 제고

03 학생 | 수요자 중심 교육 환경 및 대학 문화 조성

04 산학협력 | 기업가적 산학협력을 통한 글로벌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

05 국제화 | 국제적 수준의 대학 교육 체계 확립

06 행정 | 시스템 혁신을 통한 책임 행정 강화와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07 재정 | 안정적 재정 확보와 효율적 재정 운영



단국대 제19대 총장에 취임한  
안순철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제18대 김수복 총장 이임식 제19대 안순철 총장 취임식 가져



제18대 김수복·제19대 안순철 총장 이·취임식이 지난 9월 7일(목) 오후 2시 죽전캠퍼스 난파음악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이·취임식은 장충식 명예이사장, 장호성 이사장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과 외빈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전임 총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임 총장의 청사진에 믿음과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김수복 전임 총장은 이임사에서 “개교 72년 이래 첫 동문 총장으로 취임해 4년의 소임을 마치게 돼 영광이다. 단국 역사의 일원으로 함께한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 잊지 않겠다”며 소통형 총장으로 걸어온 4년간의 임기를 회고했다. 이어 “코로나19와 학령인구 절벽이라는 고등교육 현실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단국

인 모두의 애교심으로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며 퇴임인사를 전했다.

8월 25일부터 4년 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 전임 총장은 재임 기간 중 ‘교육중심의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캠퍼스’ 구축을 표명하며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과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았다. 코로나 19의 위기 상황속에서 신속하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며 온라인 강의시스템 구축과 대학 운영의 정상화에 힘썼고, 혁신융합대학(바이오헬스, 반도체 소부장), LINC3.0, 인문사회융합인재 양성사업, 캠퍼스 혁신파크사업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수주로 대학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했다.



## 안순철 신임 총장, “재정확충·평판도 개선에 전력… 단국 혁신 역사 함께해 주길”

안순철 신임 총장은 “76년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단국대 총장의 소임을 맡겨주셔서 영광이다”라며 “본인에게 부여된 소명과 책무를 절감하며 중재 장충식 명예 이사장님, 장호성 이사장님,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님과 교직원 선생님, 23만 동문 및 학생 여러분과 함께 혁신 단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총장은 ‘혁신 버전 5.0 시대’ 구현을 위해 재임 중 정부연구비 수주 확대·대학발전기금 유치·기술사업화 및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투자·학교기업 설립 등을 통해 대학 재정을 일대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플랫폼 구축을 통한 국제 수준의 연구 풍토 조성 등 대학 평판도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형 교육 인프라 구축과 최상의 교육경쟁력 확보 (교육) △지속가능한 연구 플랫폼 구축 및 국제 수준의

연구 활성화, QS지표 제고(연구) △수요자 중심 교육환경 및 대학문화 조성(학생) △기업가적 산학협력을 통한 글로벌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산학협력) △국제 수준의 대학교육체계 확립(국제화) △시스템 혁신 통한 책임행정 강화와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행정) △안정적 재정확보와 효율적 재정운영(재정) 등 24개 과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명실상부한 단국대 혁신 버전 5.0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순철 총장은 “규범과 상식에 따라 대학을 경영함으로써 원칙과 합리성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합당하게 대우받는 공정 경영에 솔선수범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설립자의 정신이 깃든 단국대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장학 이념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미래 사회를 선도할 정통 사학의 초석을 다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바이오헬스·반도체·미래차 인재육성 박차

“캠퍼스혁신파크·바이오헬스케어·  
차세대반도체 투자”



단국대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학문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학문 육성과 함께 연구성과를 기업과 지자체 등에 기술이전해 사업화하는 등 성과도 창출하고 있다.

## 캠퍼스혁신파크 선정, 충청권 대표 산학연 생태계 구축

단국대 천안캠퍼스가 정부가 지정하는 '4기 캠퍼스 혁신파크'에 선정돼 충청권을 대표하는 산학연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캠퍼스혁신파크는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이를 통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3개 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공동사업이다.

사업에는 국비 및 지방비, LH공사 투자금, 대학대응자금 등 총 536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까지 산학연 혁신허브 시설을 준공, 혁신기업 124개 및 연구소를 유치해 연 매출 2천억 원, 누적 고용 1천명 이상을 창출할 계획이다.

혁신파크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산학연 혁신허브관'은 천안캠퍼스 부지 2만

## 천안캠퍼스 BT 클러스터, “2만5천여 바이오인재 육성”



1,453㎡에 지상 12층(연면적 1만 9,997㎡) 규모로 설립되며 첨단부품·소재 및 바이오헬스, 스타트업 기업·창업 후 성장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등이 들어선다. 산학연 혁신허브관(첨단·스타트업 Zone) 신축 후에는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오픈스페이스 Zone'(창업보육센터·오픈스페이스관)과 '바이오헬스케어 Zone'(스마트의료실증 콤플렉스)이 조성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인재양성도 본 궤도에 올랐다. 2021년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현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으로 사업명 변경) 주관에 선정된 단국대는 1·2차년도 사업평가에서 사업 참여 56개 대학 중 당당히 1위에 올랐다.

79개 바이오융합강좌를 신설하고 컨소시엄 내 타 대학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이수제를 도입해 1만5천여 명이 관련 강좌를 이수한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협력해 교육·학사관리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동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및 기관과 협력해 2026년까지 2만5천여 명의 바이오인재를 양성한다는 포부다.

단국대는 바이오헬스케어 특성화를 위해 의학·치의학·약학·의생명과학 계열의 전공과 연구소, 단국대학교병원, 치과병원 등 천안캠퍼스의 BT(바이오 테크놀로지)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재육성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기계공학과 역시 자율주행·전기자동차 조류를 선도하기 위해 미래형 자동차 개발과 제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디지털 제조장비와 AI협업로봇, 친환경자동차, 스마트센서 분야 연구과제를 연이어 수주하며 학부생 및 매년 30여 명의 석·박사를 신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교육역량을 갖췄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동력장비, 시뮬레이터, 첨단 배터리 등 관련 장비를 구축하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실무중심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 차세대반도체사업단 출범, 소재·부품·장비 실무인재 육성



단국대는 경기-충남권역의 'K-반도체 산업벨트'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위치한 용인지역의 뛰어난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반도체 분야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융합반도체공학전공을 신설해 80명의 신입생을 선발했으며 대학원에 파운드리공학과를 설립하는 등 설계·소자·재료·공정 등 반도체 전반에 대한 학부-대학원 교육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단국차세대반도체사업단'을 출범하고 673.6㎡ 규모의 클린룸을 2학기 중에 구축하는 등 교육·연구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기업과의 산학협력, 기술이전, 계약학과 설립,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 수주에도 나서고 있다.

단국대는 반도체 육성을 위한 전문사업단 발족과 교육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최근 국가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반도체소부장 분야'에서 성균관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 수주에 성공했고, 4년간 408억 원을 지원받아 단국대(죽전·천안캠퍼스)를 포함해 컨소시엄 참여 대학들이 연간 1,000여 명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인재를 양성할 토대를 구축한다.

사업단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문제기반학습(PBL), 기업참여형 프로젝트를 교육과정에 도입해 산학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등 실습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석사 연계 심화과정과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도 동시에 추진한다.

단국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반도체분야'(교육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에도 선정돼 5년간 70억 원을 지원받아 실무인재 1,074명을 양성하고 장학금 지급과 취업연계 지원에도 나선다. 전력반도체 글로벌 기업 '온세미코리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 솔루션 제공기업 '에드워드코리아' 등 반도체 분야의 100여 개 기업과 공동으로 1년 미만의 단기집중교육과정을 운영해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아우르는 반도체의 설계·공정·소자·소재 분야 실무인재를 육성한다는 청사진이다.

안순철 총장은 “단국차세대반도체사업단 출범을 계기로 반도체 특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첨단 교육과정 구축과 전문가 발굴, 재학생의 취창업 지원 등 실질적인 과제수행을 통해 국가인재를 육성 하겠다”라고 밝혔다.



## K-컬처 융합인재 양성에 국비 85억 원 투입



단국대 천안캠퍼스는 최근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글로벌·문화 분야'(교육부·한국연구재단 주관) 주관대학에도 선정돼 이공계 발전과 함께 글로벌 K-컬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에도 나섰다.

사업명은 '글로벌 K-컬처 선도 융합인재양성'. 교내 외국어계열 12개 전공과 문예창작과가 중심이 된 이 사업에는 주관대학인 단국대를 포함해 동서대, 원광대, 한서대, 청강문화산업대가 참여하며 3년간 85억여 원을 지원받아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육기반 개선, 학사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단국대는 특성화 분야 연구성과가 대학에 머물지 않고 기업에 적재적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 플랫폼 'D스타랩'을 구축했다. D스타랩은 5G·소재부품·미래에너지 등 6대 유망기술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성과를 기업에 이전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단국대는 기술이전 플랫폼 D스타랩을 통해 최근 3년간 67억여 원에 이르는 기술이전 수입을 달성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단국대는 최근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BRIDGE 3.0)'에 선정돼 3년간 최대 20억 원을 지원받아 기술사업화 선순환 체계 구축에 나선다. 사업단은 대학이 정한 7대 국가기술전략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 △사이버 보안 △수소 △이차전지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 바이오)를 중심으로 30억 원 이상의 기술이전 성과를 달성하고 30개의 교원 창업기업을 설립한다는 포부다.

단국대는 첨단기술의 기업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대학원)를 설립해 2027년까지 국비 68억 원을 지원받아 매년 40~50명의 기술이전전문가도 육성하는 등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 육성에도 매진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기술이전료 67억 원 달성, BRIDGE3.0 사업 선정



# 교육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단국대에서 출범식 가져

8월 29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출범식 가져,  
글로벌·문화 등 5개 분야 인재육성에 450억 원 투입  
대학 간 경계 허물고 본격 융합인재 육성에 나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지원 인재양성사업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혁신성장을 이끌 또 하나의 인재양성사업인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이 29일 오후 2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보건과학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시작을 알렸다.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은 교육부가 △디지털시대의 가치와 규범 △기후위기 △위험사회와 국가전략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글로벌 사회와 선도형 문화예술 창신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5개 분야의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사업분야별 90억 원 등 총 450억 원이 지원되며, 분야에 따른 각 컨소시엄은 사업주관대학과 참여대학 등 5개 대학으로 구성됐고 5개 컨소시엄에 모두 25개 대학이 참여하는 메머드 인재육성 사업으로 전개된다.

각 컨소시엄은 대학 내 학과(전공) 간 또는 대학 간 경계를 과감히 허물어 학문 간 융합 교육을 본격 도입하고 이를 통해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인재를 육성한다는 청사진이다.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교육인프라를 혁신하고 컨소시엄 대학 간 비전과 교육모델, 교육시스템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안순철 총장은 "미래 산업분야의 인재육성과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의 의미있는 진전을 위해 대학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대학간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통해 국가의 혁신성장을 이끌 창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글로벌·문화분야' 사업주관대학인 단국대는 3년간 90억 원을 지원받아 컨소시엄과 협력해 글로벌 K-컬처 융합교육모델을 구축하고 대학 간 자산과 역량을 공유한 초연결형 플랫폼을 구축해 5,000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 글로벌·문화 분야 주관대학 선정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은 학내 학과 간, 대학 간 경계를 허물고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단국대가 주관대학으로 선정된 '글로벌 K-컬처 선도 융합인재양성 컨소시엄'은 단국대 외국어대학 소속 12개 전공 및 예술대학 문예창작과, 동서대, 원광대, 청강문화산업대, 한서대가 참여하며 3년간 84억 9천만 원을 지원받아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 교육 과정 개발·운영, 교육 기반 개선, 학사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사업단은 K-컬처의 대표 분야(영화/드라마, 웹툰/애니메이션, 음악/공연, 문학/웹소설)와 문화예술 분야 대표 직군(스토리빌더,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평론가)을 결합하여 수준별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크리버스 통합 플랫폼'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

컨소시엄 참여대학 간 인프라도 함께 공유해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의 진로 개척 지원, 창의적 청년들의 융합교육의 장 구현, 글로벌 K-컬처와 융합교육의 가치 구현에 최적화된 교육모델 구축, 참여대학 간 자산·역량을 공유하는 '초연결형 We러닝'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5,000명의 글로벌 K-컬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집중이수제, 자율설계 학점제, 대학 간 공동이수제도, 마이크로디그리 제도 등과 같은 초유연 학사제도도 신설해 문화예술의 특수성과 교육적 수월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개발할 예정으로 장세원 사업단장은 "컨소시엄을 통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K-컬처 융합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 독립기념관, 범정 장형 선생 발자취 재조명



독립기념관이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국독립운동과 국제회의'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단국대학의 설립자이신 범정 장형 선생을 비롯해 일제강점기에 각종 국제회의를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활약상을 재조명했다.

특별기획전에서는 헤이그 특사를 포함해 △태평양회의(워싱턴회의 1921.11.12.~1922.2.6.) △카이로회의(1943.11.) △샌프란시스코회의(1945.4.) 등 각종 국제회의 개최시 세계 만방에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호소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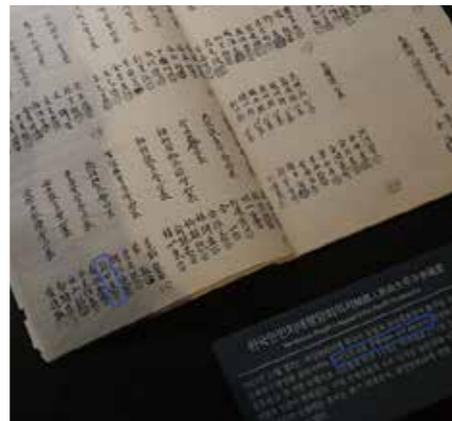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은 "1905년 을사늑약에 따른 국권

강탈로 고종이 1907년 헤이그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후 범정 선생은 임시정부의 국내 거점조직인 반도고학생 친목회를 조직, 이를 중심으로 태평양회의를 후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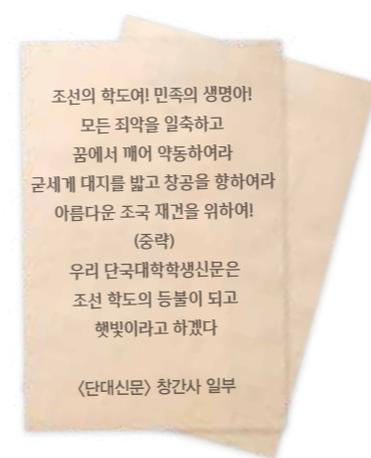
기획전 개막식에 참석한 단국대 김수복 전임총장은 "범정 장형 선생은 상하이에서 '대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가 조직된 바로 그 날, 국내에서 '반도고학생친목회'를 조직하여 외교활동의 국내 거점을 마련했다"며 "이번 전시는 전국을 누비며 잠들었던 민족정신을 일깨우는데 진력하신 범정 장형 선생을 소개하고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회의에 제출된 한국청원서에 반도고학생친목회 대표로 서명 날인한 장형(장세담) 선생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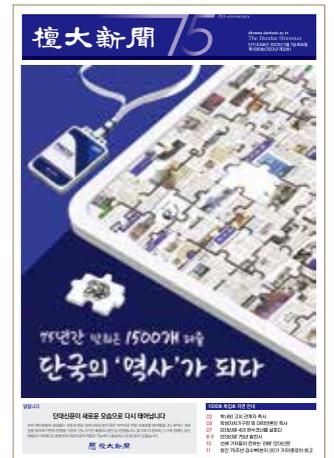
## Since 1948 단대신문, 창간75년 맞아 1500호 발행



조선의 학도여! 민족의 생명여!  
모든 죄악을 일축하고  
꿈에서 깨어 약속하여라  
근세계 대지를 밟고 창공을 향하여라  
아름다운 조국 재건을 위하여!  
(중략)  
우리 단국대학학생신문은  
조선 학도의 등불이 되고  
햇빛이라고 하겠다  
  
(단대신문) 창간사 일부



1948년 창간한 (단대신문(왼쪽)). 초창기 제호는 '단대학생신문'으로 발간됐다. 오른쪽은 단대신문 지령 1500호 1면



1500호 발간을 맞아 단대신문이 기존 대판(왼쪽)에서 베를리너판(오른쪽)으로 변화했다. 베를리너판 지면 크기는 기존 대판의 71%이다.

정론(正論) 직필(直筆)의 사시 아래 단국대의 역사와 함께한 학보사 단대신문이 3월 15일 창간 75주년을 맞아 지령 1500호를 발간 기념식과 함께 '희망캡슐 봉인식'을 가졌다. 단대신문은 대학 설립 이듬해인 1948년 3월 1일 국내대학 학보사 중 다섯 번째로 창간했다.

창간 당시 단대학생신문으로 출발했으나 1961년 현재의 제호로 변경한 후부터는 민주화 쟁취와 군사정부 비판, 고정 기획 연재 등 학생독자의 관심이 폭증한 이

슈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지면혁신과 독자 편의를 위해 900호(1993.4.27.)부터 가로쓰기를, 창간 50주년을 맞은 980호(1998.3.3.)부터 칼라인쇄를 각각 도입했다.

이후 '백색볼펜·백묵처방·주간기자석·전문가 기고' 등 주요 코너를 확대하며 학보사의 정체성을 뚜렷이 확립했고 최근 지령 1500호를 맞아 기존 대판 판형을 베를리너판 판형으로 변경하는 등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 하계 방학 맞아 해외봉사활동 다녀와 캄보디아·몽골에 전해진 진리·봉사



죽전캠퍼스 해외봉사단(단장 서문석) 35명은 6월 24일부터 9박 11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시엠립의 '따똌학교'를 찾아 수학, 과학, 예체능수업 등 교육봉사, 급식 봉사활동과 함께 교육시설을 정비했다. 교과수업 외에도 한류확산을 위해 한국전통무용, 태권도, K-팝 댄스 공연을 펼쳤고 캄보디아 출신 대학원생 깨끗한도 봉사에 참여해 나눔의 뜻을 더했다.

천안캠퍼스 해외봉사단(단장 김기홍) 30명도 6월 24일부터 9박 10일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토르 9번 학교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초·중고 과정을 운영하는 9번 학교는 3천여 학생이 재학하는 몽골 내 대규모 학교로 봉사단은 한국어·과학·미술·체육수업과 학교시설 개보수, 벽화그리기, 보건교육을 수행하고 몽골국립대를 찾아 양국 간 문화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단국대는 2007년 사회봉사단 창단 후 국내외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해외봉사를 위해 현재까지 학생·교직원 2,400여 명이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에 파견되어 대학의 교신인 '진리·봉사'를 실천해 왔다.



## 세계 최대 몽골어 사전 몽한대사전 편찬



단국대 몽골연구소가 편찬한 세계최대의 몽골어 사전인 『몽한대사전』

1993년 국내에서 최초로 몽골학과를 설립한 단국대가 부설 몽골연구소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몽골어 사전인 『몽한대사전(蒙韓大辭典)』(단국대출판부, 2023)을 편찬했다. 총 2권으로 구성된 『몽한대사전』은 3,090 페이지 분량에 표제어 8만 5천여 단어를 수록했다. 우리 민족이 고려시대 원(元)나라와 교류한 지 700여 년 만이자 2009년 사전 편찬 업무를 시작한 지 15년 만이다.

몽골 연구자들은 기존에는 영어·일어·중국어 기반의 몽골어 사전을 이용해 연구했으나 몽골연구소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몽골과학원 산하 몽골어문연구소가 발간한 '몽골인의 국어 대사전' 격인 『몽골어 상세풀이 사전(2008년)』을 기반으로 번역 및 오류 수정, 보완작업을 걸쳐 『몽골어 상세풀이 사전』보다 5천 단어가 더 많은 사전을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사전은 12~13세기 몽골 대제국을 건설한 칭기스칸 이후 현재까지의 몽골 모든 문헌에서 채록한 관용어와 속담, 수수께끼, 격언, 고어 등을 수록했다. 본문의 표제어는 '△키릴문자(몽골 현대 문자) △몽골 전통문자(위구르진 문자) △해당 한국어 △ 키릴문자 예문 △키릴문자 예문을 번역한 한국어 문장' 순으로 소개했고, 러시아어 및 티베트어 차용어·방언·고어·신조어 등은 몽골어 자모 순서로 제시해 내몽골, 외몽골 등 몽골 모든 지역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성규 명예교수는 "국내에서 발간된 기존의 몽골어 사전류는 대체로 어휘 수가 적고 예문이 충분하지 않아 입문자 또는 여행자를 위한 어휘집 수준이었는데 이 사전을 계기로 몽골어와 몽골문화 본격연구 및 한국어와의 비교연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됐다"며 "인문학 분야의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 단국스포츠, 날아오르다

### 장호성 이사장,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결단식 가져

장호성 이사장(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장)이 7월 20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1 청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2021 Summer World University Games)' 한국선수단 결단식을 가졌다. 장 이사장은 결단식에 참석한 출전선수와 스텝들을 격려하며 그동안 흘린 땀의 노고를 위로했다.

중국 청두(쓰촨성)에서 열린 이번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2년간 연기되었다가 올해 7월 28일에서 8월 8일까지 열렸다. 장 이사장은 세계대학경기대회(WUG)를 주최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한국대표 자격으로 이날 선수단의 건승을 기원하며 선수단기를 단장에게 전했다. 한국선수단은 '청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15종목 344명이 출전했으며 금 17, 은 18, 동 23개를 거머쥐며 종합순위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세계대학경기대회는 2년마다 열리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129개 회원국이 참여한다.



## 체육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대학평가 5년 연속 1위



단국대 체육부가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 우수 학생선수 발굴, 지도자 역량 제고 등의 노력에 힘입어 5년 연속 대학운동부 평가 1위에 올랐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최근 전국 130개 대학의 운동부를 대상으로 △대학 지원 △학생선수 확보 및 역량 △지도자 확보 및 역량 △대학운동부 사회적 책임 등 세부 평가 지표를 통해 대학 운동부를 평가했다. 우리 대학은 시설 및 지도자 확보 등 정량지표와 사회적 협력 부분 등에서 지표를 뛰어넘는 우수한 평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1억 8천 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 씨름부, 최고 권위 '대통령기' 단체전 우승, 학산김성률장사배 2연패

씨름부(감독 주두식)가 최고 권위의 대통령기전국장사 씨름대회 대학부 정상에 올랐다. 지난 4월 학산김성률배 우승에 이은 단체전 2관왕이다. 지난 4월 학산김성률장사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는 2연패와 함께 주두식 감독이 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주두식 감독은 "강인한 정신력과 투혼을 발휘한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산김성률장사배와 대통령기대회에 연이어 우승을 차지해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단국스포츠, 날아오르다

### 농구부, 종별농구선수권대회 우승

농구부가 지난 8월 4일 전남 영광군 국민체육센터에서 막을 내린 '제78회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대학부에서 4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농구부는 석승호 감독의 전략과 선수들의 혼연일치로 건국대를 7대 56로 꺾으며 우승을 거머쥐었다. 석승호 감독은 "4년 만의 우승이라 선수들이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많이 얻었을 것"이라며 "훈련과 정에서 부상과 안전을 늘 신경쓰며 지도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 축구부, 창단 최초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

축구부(감독 박종관)가 창단 최초로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정상에 올랐다. 지난 2월 25일 경남 통영의 산양스포츠파크서 열린 '제59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한산대첩기에서 단국대는 제주국제대를 3대 2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전 첫 골을 터트리며 최우수선수상(MVP)을 받은 김병현 선수는 "27년 동안 이루지 못한 단국대 춘계 첫 우승이라는 역사를 저를 비롯한 모든 선수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했으며 박종관 감독은 "대학 구성원들의 관심과 애정이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단국대 듀오' 최석현-이승원, U-20 월드컵 4강신화 함께 썼다

지난 6월 2023 FIFA(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에 출전한 단국대 듀오 이승원(국제스포츠전공, 강원FC)와 최석현(국제스포츠전공 2년)이 맹활약하며 아시아 최초 U-20 월드컵 2회 연속 4강 신화를 함께 썼다. 지난 6월 5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FIFA U-20 월드컵 8강전에서 우리 대표팀은 이승원의 코너킥을 최석현이 헤더로 연결해 결승골을 기록하며 나이지리아를 1-0으로 꺾으며 4강에 진출했다.

이승원(22번), 최석현(26번) 선수의 경기 모습



## 김현진 교수, ‘반도체 테스트’ 최우수논문상

전자전기공학부 김현진 교수팀이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가 지난 6월 27일 개최한 제24회 한국반도체테스트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SK하이닉스 후원)을 수상했다. 김 교수팀은 논문 '이미지 매칭 기반 웨이퍼 결함 패턴 검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의 불량 칩을 선별해 신뢰도를 높이고 수율을 향상하는 테스트 방법을 제안했다. 웨이퍼 가공 후 전기 테스트를 시각화해 시머신러닝을 통한 불량 패턴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방법이다. 연구와 논문 작성에는 전자전기공학부 권영욱(석사과정)·오수민(4년)이 함께 했다.



김현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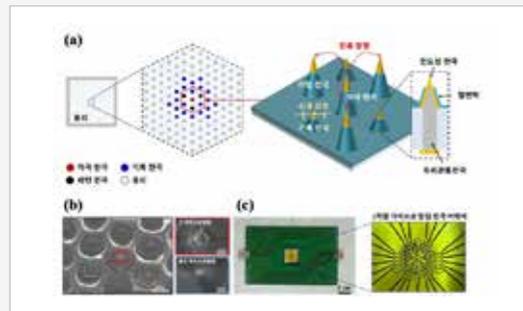
## 김인호 교수, 한돈산업 발전 기여 ‘한돈 금상’ 수여

김인호 교수(생명공학대학장)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대한한돈협회가 지난 7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K-PORK 한돈페스타' 기념식에서 한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돈 금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여받았다. '돼지 연구 대가'로 꼽히는 김 교수는 특히 무항생제 양돈 사료를 개발하고 새끼돼지의 성장성 향상을 위한 사료 연구 등을 통해 동물사료 가공 및 생산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우리 돼지 '한돈'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는 성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인호 교수

## 박재형·이승기 교수 연구팀, 인공 망막 성능 200배 높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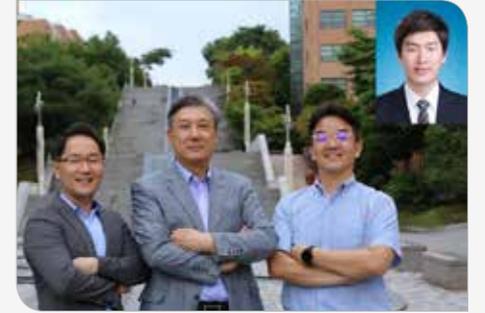
박재형·이승기 교수

전자전기공학부 박재형·이승기 교수팀(신소빈·남경택 연구원)과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과학연구소 임매순 박사 연구팀(노현희·심심용 연구원)이 반도체 공정기술을 활용해 기존 성능보다 200배 향상된 인공 망막 3차원 투명 마이크로 탐침 전극 개발에 성공했다. 기존 인공 망막은 2차원 평면 형태로 신경세포와 거리가 멀고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전류가 넓은 영역으로 퍼져 높은 해상도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정밀 자극이 가능한 끝이 뾰족한 탐침 형태의 3차원 투명 마이크로 전극을 개발해 기존 성능 대비 200배를 향상시켰고, 고해상도로 신경세포 전기 자극 및 신경 신호 기록을 동시에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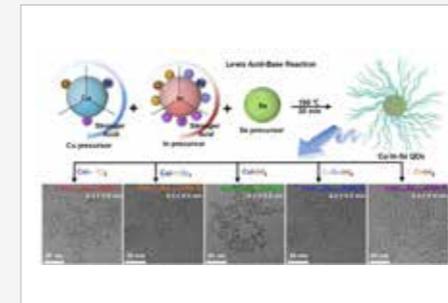
## 토목환경공학과, ‘탄소중립 원천기술연구’ 과기부 사업 선정

토목환경공학과 교수팀이 '2023년 집단연구지원사업 기초연구실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한국연구재단 주관)에 선정돼 3년간 13억 7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연구팀은 박성완·김병수·최명성 교수와 강원대 김재현 교수(분교 토목환경공학과 05학번) 등 4명. 연구팀은 토목건설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반과 도로 분야를 중심으로 순환-지속가능한 지반재료와 시스템 디자인 원천기술 개발에 나선다.



박성완·김병수·최명성·김재현 교수

## 김재엽 교수, DGIST와 공동으로 세계 최고 수준 태양광수소 생산기술 개발



김재엽 교수

김재엽 교수(화학공학과)와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에너지공학과 연구팀(양지웅·인수일 교수)이 반도체양자점을 활용해 기존보다 효율이 20배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광전기화학적 수소 생산법은 태양광과 전기를 사용하는 물 분해 과정에서 산화물 반도체(이산화타이타늄)가 4%에 불과한 태양광에너지 흡수율을 보인 단점이 있었는데 연구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리, 인듐, 셀레늄 등을 활용한 반도체양자점을 이용하여 태양광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광전극을 제작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 산단 자회사 (주)알지노믹스, 악성교모세포종 치료제 FDA 임상 1·2a상 계획 승인

산학협력단 자회사 (주)알지노믹스(대표 이성욱 교수, 대학원 생명융합공학과)가 지난 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간암치료제 'RZ-001'의 임상 1·2상 계획 승인에 이어 6월 1일 'RZ-001'의 악성교모세포종(뇌암의 한 종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2a상 계획도 연이어 승인받았다. RZ-001은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벡터로 리보핵산 치환효소를 전달함으로써 암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텔로머라아제(hTERT) RNA를 표적, 항암작용을 유도하는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기전이다. RZ-001이 표적하는 텔로머라아제(hTERT)는 대부분의 암세포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여러 암종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성욱 교수

##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최근 6년 18명 합격·올해 4명 합격”

단국대 재학생 및 동문 4명이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2023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행정·기술 분야에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는 행정직군 △강유석(법학과, 2022.2월 졸업) △고흔(경영학부, 19학번) △문지현(법학과, 17학번), 기술직군 오진수(전자전기공학부, 2022.2월 졸업) 등 4명이다. 우리 대학은 △2018년(5명) △2019년(1명) △2020년(5명) △2021년(3명) △2023년(4명) 등 최근 6년간 1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 2023학년도 교원임용 시험 87명 합격

단국대가 2023학년도 초·중·등 교원임용시험에서 8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5명, 경기·인천 65명, 충남 3명, 강원·충북·전남·제주 각 1명이다. 65명이 합격한 사범대학은 한문교육과 5명, 특수교육과 21명, 수학교육과 12명, 과학교육과 13명, 체육교육과 14명이 각각 합격했다. 교직과정을 이수한 비사범계열에서도 9명이 합격했다(식품영양학과 3명, 컴퓨터과학과 1명, 간호학과 1명, 영어과 1명, 중국어과 1명, 공공관리학과 1명, 생명과학과 1명). 교육대학원 및 특수교육대학원 동문 13명도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단에 진출했다. 전공별로는 미술교육 4명, 영양교육 3명, 상담심리 1명, 국어교육 1명, 화학교육 1명, 음악교육 1명(이상 교육대학원), 유아특수교육 2명(특수교육대학원).

## 엄혜정 양, 전국대학생 러시아어 토론대회 금상 수상

엄혜정 양(유럽중남미학부 러시아학전공 2년)이 지난 5월 26일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와 주한 러시아연방대사관이 공동 주관한 '2023 제13회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대회'에서 금상(2등)을 수상했다. 특히 이번대회에서는 러시아어권 연수 경험이 적은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취지 아래, 참가 자격을 '러시아어권 체류 기간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으로 제한했다. 결승에서는 세계적인 러시아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탄생 150주년인 것을 기념하며 '라흐마니노프', '음악', '교육' 주제로 토론을 전개했다.



PEOPLE

## 변은주 양 ‘고뇌하는 청년의 삶 춤사위로 표현’ 국내대회 1위

변은주 양(무용과 3년)이 지난 7월 8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국댄스연맹 주관 「2023 청주그랑프리 국제댄스연맹(IDO) 월드챔피언십 국가대표선발전」에서 현대무용(솔로여자) 1등에 올랐다. 변 양은 빠른 템포의 배경음악에 맞춰 현대 사회와 단절된 채 집에서 은둔하는 청년들의 자화상을 춤사위로 표현해 심사진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지도를 맡은 김혜정 교수는 “훌륭한 테크닉과 감정 이입이 돋보이는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였다”라고 평가했다. 변 양은 이번 우승으로 8월 홍콩에서 열린 '국제댄스연맹(IDO) 홍콩 댄스 엑스포'에 한국 대표로 출전했다.



## 손세원·배준현 군, 전국대학생모의유엔회의 장려상

정치외교학과 손세원(4년)·배준현(3년)이 지난 7월 7일 전남대에서 열린 28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유엔한국협회 주최, 외교부 후원)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손세원·배준현 팀은 '영해·영토 등 국가영역에서 발생하는 해적 행위를 유엔안보리가 일방 개입할 경우 해당국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2008년 국제공조를 통해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한 사례를 제시하며 유사 사례 발생시 국제협력시스템이 최선의 전략임을 주장했다.



## 경영경제대학 금융투자학회, ‘국제재무분석사 한국협회(CFA)’ 국제투자분석대회 우수상

경영경제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된 금융투자학회 INTEGRITY 팀이 '국제재무분석사 한국협회(CFA)'가 지난 1월 개최한 2022-2023 국제투자분석대회 우수상에 올랐다. 경영학부 양철원 교수 지도 아래 INTEGRITY팀(안수현·윤상인·오정민-경영 4년, 김인영-국제경영 3년, 강호정-경제 4년)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KT그룹의 기업가치, 관련 산업동향, 기업 분석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분석해 우수상을 차지하고 상금 1백만 원을 받았다. 지도를 맡은 양철원 교수는 “학생들의 집념과 지난해 우승한 선배들의 노하우가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



# 「대(大)단(檀)한 기부」, 참가자 1천 360명

대학의 미래를 바꾸는 소액 기부의 힘, 약정 총액 29억 돌파

단국대의 주력 모금캠페인 「대(大)단(檀)한 기부」에 1천 360명이 동참해 주셨고, 약정액은 2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단한 기부는 지난 2019년 3월에 시작된 기부프로그램으로

기부자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금액(월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기타)을 일정 기간 약정·기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888명의 교직원들이 13.7억 원을 약정하며 기반을 다졌고, 교외로도 꾸준히 확산되어 현재까지 329명의 동문들이 화답해주셨습니다.

또한 기업 및 단체로부터 9.2억 원의 후원금이 답지했으며 지역사회 주민들과 학부모님들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몰두해 미래를 견인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구성원별 약정금액 (기준 : 2019. 3. 1. ~ 2023. 7. 31.)



## 2023년 전반기 발전기금 32억 4천여만 원 조성

전년 동일 기간 대비 34% 상승,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정기부 증가

2023년 전반기에 총 491명의 후원자께서 대학발전을 위해 32억 4천여만 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후원자님의 소중한 발전기금은 우리 대학이 명문 사학으로 거듭나게 하는 든든한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 “단국사랑 후원의 집”

‘단국사랑 후원의 집’ 캠페인은 2008년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캠페인으로 출범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주변 업체 이용을 장려해 대학 상권을 활성화하고 업체에서는 장학금을 조성해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지역 상생과 소액기부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후원의 집 장학금에는 16년 동안 194개 업체가 동참해 10억여 원의 누적 장학금을 조성했으며, 지금까지 죽전캠퍼스 90명, 천안캠퍼스 65명 등 총 155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후원해주고 계시는 대학 주변의 업체 24곳을 소개합니다.



### 음식점

죽전	천안
유프로네 서울해장국감자탕 팔선생 홍아저씨초밥 고래심줄 선영이네김치파글이 산고을오리 맛의전쟁 예촌 왕 돌판구이	동시상영 신승관 국수기행 정이가 교동짬뽕 가장맛있는족발(신부점) 정초밥

### 병원

죽전	천안
빅스마일치과병원	

### 인쇄, 출판, 문고

죽전	천안
(주)피닉스시스템	(주)아리랑아이엔 단국화방

### 꽃, 기념품

죽전
(주)까르멘

### 커피, 제과

천안
투썸플레이스(천안두정점) 수빵소 블루포트 이디야커피(단국대학생회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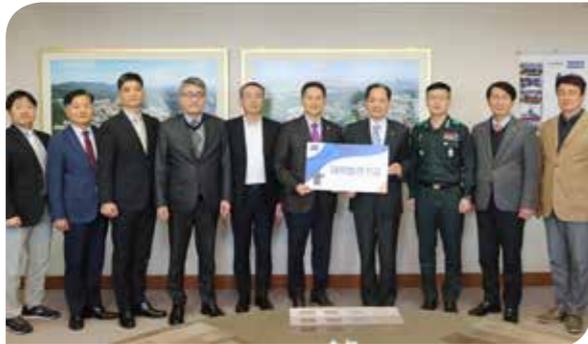
## 씨름부 이병용 선수, 발전기금 1,500만 원 기탁

2021년 3관왕, 2022년 2관왕에 올랐던 이병용 동문(국제스포츠학과 19학번)이 올해 초 창단한 'MG새마을금고 씨름단'에 입단하며 발전기금 1,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병용 동문은 김수복 총장에게 “대학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고, 땀흘리는 후배들과 스태프들을 격려하고 싶었다”며 기부 소감을 밝혔다.



## 125학군단 총동문회, 누적 8,600만 원 기탁

125학군단 총동문회(회장 양문옥)가 장학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동문회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8,600만 원을 기부하며 후배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양문옥 총동문회장(중어중문학과 85학번)은 “군사교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후배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정책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원우회, 5천만 원 기부

정책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원우회가 대학발전을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원우회는 대학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했다. 박용일 원우회장(40기)은 “십시일반 모은 발전기금이 대학과 대학원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직원 노조, 장학금 1억 원 쾌척

단국대 직원 노동조합이 창립 35주년을 맞아 장학금 1억 원을 또다시 쾌척했다. 지난 2018년부터 노동조합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110명에 달한다. 진광민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은 후학 사랑과 애교심으로 선진행정 구현에 앞장서 왔다”며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질 길 바란다”고 밝혔다.



## DANKOOK DEVELOPMENT FUND

아래 기부자는 2023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발전기금을 새롭게 약정하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발전기금 기부안내

<http://dkufund.dankook.ac.kr>

### 대외협력처

[죽전] 031-8005-2037-8  
[천안] 041-550-1820  
메일 : fund@dankook.ac.kr  
우리은행 1006-401-240655  
국민은행 390437-04-001322  
(예금주 : 단국대학교)

### 대외협력처 카카오톡 QR코드

#### 대외협력처 카카오톡 채널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정책과 보람 그리고 자부심! 학교소식과 기부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국대학교는 후원자님께 다양한 대학 소식을 제공하고자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1억 원 이상

홍익인간요람유한회사  
(주)나은행 죽전중앙지점  
세에덴교회  
단국대학교 노동조합

#### 5천만 원 이상

(재)범은정학재단  
김인호(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학부)  
천안농업협동조합  
이인채(치위학과 92학번)

#### 3천만 원 이상

메가스타디움(주)  
재단법인우역재단  
(주)카리스  
한규동(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 1천만 원 이상

후지필름코리아  
우승훈(의과대학 의학과)  
명나혜(의과대학 의학과)  
김백근(치위학과 81학번)  
(주)덴티움

#### 신흥연송학술재단

주식회사 디지털대성(대성아이맥)  
이병용(국제스포츠학과 19학번)  
대한씨름협회  
(주)다우기술

####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심상신(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유해원(자유교양대학)  
윤영문화재단  
윤해근(주식회사 대동환경에너지)

#### 이해형(치과대학 치의예과)

주식회사 동양  
남재걸(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이수진(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전혜성(행정법무대학원)

#### 5백만 원 이상

고려씨씨씨  
(주)현대중공업스프츠  
디앤디건설(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전력공사  
(주)대구은행  
동국제약(주)

#### 김석현(법과대학 법학과)

문주장학재단  
재단법인하나금융총구단  
한국대학총구연맹  
노경한(강남본정형외과의원)  
장선아(예술대학 미술학부)  
이준배(단국회방)

#### 이디야커피(단국대학생회관점)

이기영(신승관)  
정윤주(커뮤니케이션학부 13학번)  
조완제(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정광훈(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 강원FC

인천유나이티드  
건일제약(주)  
명진환경산업(주)  
박만순(정책경영대학원 행정학과 19학번)

#### 신성규(정책경영대학원 경영학과 18학번)

아산사회복지재단  
(주)에스케이메디칼  
오현주(주)마포레스트  
이용호(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재단법인 동아시아국제교육재단

주식회사 크레비스  
천윤성(법관사)  
최승식(음악·예술대학 음악학부)

#### 3백만 원 이상

김규열(홍익인간요람유한회사)  
장태수(공공·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메가엠디(주)  
최승혁(수학교육과 16학번)  
(주)덕신하우징  
가나안교회  
하이트인포텍 주식회사

#### 재단법인하림장학재단

일주학술문화재단  
우지환(무역학과 14학번)  
고경호(정책경영대학원(천))  
박미영(대학원 문화예술학과)

#### 신은경(공공·보건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장수정(공공·보건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정창률(공공·보건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이지숙(공공·보건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조영은(치과대학 치의학과)

#### 김윤균(약학대학 약학과)

이정휘(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김형준(커뮤니케이션학부 11학번)  
장수환(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강정환(공과대학 전자기공학부)

#### 백지은(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선주연(경영경제대학 경제학과)  
황지은(공공·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재)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학재단  
(주)무신사

#### 김강민(분쟁해결연구소센터)

박용일(산경태양광)  
안중애(불당웰컴투공인중개사)  
이수혜(주)이엔코스  
장인수(정책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 전용강(할림건설주)

정충선(전기공학과(아) 91학번)  
홍석만(대학원 생명자원학과 08학번)  
강요환(분차과)  
이상규(공공·보건과학대학 임상병리학과)

#### 1백만 원 이상

황두성(SW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손승희(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주)엘에스에스  
오대양(동양학연구원)  
임은주(사범대학 과학교육과)

#### 이환수(행정법무대학원)

노지현(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임도형(의과대학 의학과)  
차민영(자유교양대학)  
신동윤(법과대학 법학과)

#### (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

(주)나래주조안정기술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주)한들종합건축사사무소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강생창학회

김도경(법학연구소)  
김수현(한국복지공업)  
김영찬(1251학군단)  
김현식(치위학과 82학번)

#### 서안인앤씨주식회사

씨엠알아이티(주)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위너스스포츠  
윤세한(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임일희(치위학과 84학번)

재단법인 선현
조도연(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
주재형(문과대학 철학과)
케이피아이엔지(주)
황중원(문과대학 철학과)
전규언(체육교육과 92학번)
이수미(공공·보건과학대학 환경자원경제학과)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박승훈(사회과학대학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구용서(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최재호(천안캠퍼스 학생처 장학팀)
조정희(생명공학대학 의생명공학부)
예춘왕돌판구이
이승욱(체육학과 86학번)
박중준(파나스시스템)
변용현(스포츠과학대학원(천))
임재형(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조한승(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주식회사 슈가엔
(주)CS구조엔지니어링
미래의동반자재단
홍준석(치위학과 84학번)
김상길(자유교양대학)
박재권(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이승범(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조성호(의과대학 의학과)
송일환(의과대학 의학과)
신은종(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김현(생명공학대학 환경원예조경학부)
이재희(행정학과 94학번)
남궁환(의과대학 의학과)
스피드무역
백남진(서울해장국)
장이교동장병
김수민(생명공학대학 환경원예조경학부)
이영승(과학기술대학 식품영양학과)
김미지(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박종미(예술대학 미술학부)
김학림(의과대학 의예과)
인산그리너스FC
대한축구협회
박현희(경영경제대학 무역학과)
김은주(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부)
김수임(사회과학대학 상담학과)
송인국(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정보경(의과대학 의학과)
채원병(생명공학대학 환경원예조경학부)
황종여(김옥자)
(주)누아건축사사무소
(주)디씨알앤씨메이저엔지니어링
(주)목양중흥건축사사무소
(주)바로건설기술
(주)상우구조엔지니어링
(주)씨에이치구조엔지니어링
(주)이일글로벌
(주)에어레인
(주)유신피그먼트

(주)원양건축사사무소
(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피로스정보통신
(주)한울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주)형상이엔지
DL건설주식회사
SMTSPORTS(스포츠몬스터)
(주)동부건설
가상준(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경윤미(정책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구미혜(더보테니컬샵)
극동건설(주)
김구례(주에너테크)
김동길(정책경영대학원 고위관리자)
김성진(주엘프로텍)
김성환(씨에스컴퍼니)
김장연(건축공학과 86학번)
김중배(주보성이엔지)
김형순(경영대학원 자산관리최고경영자)
도병수(법학과 81학번)
디엘이앤씨(주)
박경욱(특수교육과 87학번)
박승길(정책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박형배(주빈투게더)
배상진(주에스제이디자인크래프트)
복순도가
서의석(정책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설구호(주징안)
성홍열(경영대학원 자산관리최고경영자)
신경철(영어영문학과 79학번)
신안전기공사
안상국(정책경영대학원(천))
양승조(정책경영대학원(천))
양용수(이지에스비이오)
우소영(건축공학과 88학번)
이근형(팜젠사이언스)
이기영
이명국(주식회사아이티에스)
이승용(주다인산업개발)
이말티에스(주)
이재생(정책경영대학원 고위관리자)
임은성(대학원 생명자원과학과 18학번)
(주)자영메디칼
장동철
장태철(정책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정낙준(정책경영대학원 고위관리자)
조성식
조재석(대학원 환경원예·조경학과)
조현섭(경영대학원 자산관리최고경영자)
중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 문박 디엘피
주경화(정책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채윤기(경제학과 81학번)
최경숙
최시영(대학원 동물생명공학과)
티아이구조기술사사무소
티에스구조연구소(주)
한국대학신문연맹

홍자균(스포츠과학부 96학번)
박상영(체육교육과 84학번)
서상국(외국어대학 유럽중남미학부)
김세윤(대학원 e스포츠학과)
<b>1백만 원 미만</b>
김문식(문과대학 사학과)
서미혜(음악·예술대학/문화예술대학원 교학행정팀)
변재희(예술대학 미술학부)
정유석(의과대학 의학과)
한상길(사범대학 교직교육과)
김현주(외국어대학 유럽중남미학부)
진윤희(행정법무대학원)
지영구(의과대학 의학과)
김오영(공과대학 고분자(시스템공학부)
김주철(자유교양대학)
이진용(가장맛있는족발 신부점)
블루포트
강정선(삼일공사)
정초밥
추성엽(맛의전쟁)
강해수(법학과 14학번)
김구현(정치외교학과 11학번)
박찬민(자유교양대학 교학행정1팀)
이순일(의과대학 의학과)
임연정(자유교양대학)
김정윤(과학기술대학 물리학과)
임정민(퇴계기념중앙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
서민(의과대학 의예과)
박현우(의과대학 의학과)
우정권(자유교양대학)
조규철(공학부(천) 98학번)
가수연(사학과 89학번)
(주)광림구조 엔지니어링
(주)그랩실
(주)세진기술
(주)씨지스플랜
(주)아토이
(주)에스엔피구조안전
(주)에스엔비노바이오
(주)연우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주)이녹스첨단소재
(주)지우이엔아이
(주)케이엔지니어링
(주)형상엔지니어링
가드넥(주)
권태근(주식회사 상림원)
김대은(부동산·건설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김준성(해병대군사학과 19학번)
김홍록(주메디빙스)
메드웰(주)
미래에스디원
민영욱(대학원 생명자원학과)
베넥스바이오
선현기(제이더블유이앤씨)
성윤재(경영학부 09학번)
오상현(해병대군사학과 19학번)
오성호(빅데이터정보원 정보화기획센터 정보기획팀)

이강천(주엔지니어구조엔지니어링)
이도영(운동레인)
이두현(부동산·건설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주)이레구조내진기술
이옥준(대학원 생명자원학과)
임지은(주창신테크)
조남철(대학원 생명자원학과)
조준성(의과대학 의학과)
허성준(예술대학 미술학부)
김철기(미래교육혁신원 미래교육지원1팀)
박정호(스포츠과학부 99학번)
이기태(사회과학부 99학번)
이수영(총무인사처 구매팀)
이정미(국어국문학과 94학번)
김남정(법인 사무처 사업팀)
이영준(전자공학과 91학번)
여지영(교무처 교무팀)
염경호(행정학과 90학번)
이지영(석주선거법박물관 학예연구실)
이후광(재료공학과 93학번)
조대현(상경학부(아) 03학번)
이지한(해병대군사학과 19학번)
정진웅(해병대군사학과 19학번)
정충호(해병대군사학과 19학번)
안재범(총무인사처 증대재관리팀)
강영선(총무처 안전관리팀)
김도훈(해병대군사학과 19학번)
김윤수(해병대군사학과 19학번)
오정현(해병대군사학과 19학번)
이경목(해병대군사학과 19학번)
이상현(해병대군사학과 19학번)
임승원(해병대군사학과 19학번)
진형준(해병대군사학과 19학번)
황석원(해병대군사학과 19학번)
석우연(해병대군사학과 19학번)
김형지(의과대학 의학과)
문세영(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부)
박규식(SW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변종희(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부)
염종일(미래교육혁신원 미래교육팀)
이관호(직장예비군연대 예비군훈련팀)
조한국(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영상(과학기술대학 식품공학과)
이익수(의과대학 의예과)
이주영(미래교육혁신원 EduAI센터)
김광미(약학대학 약학과)
김명화(의과대학 의학과)
김우중(국어국문학과 11학번)
오세중(SW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오좌섭(약학대학 약학과)
이은경(의과대학 의학과)
장유정(자유교양대학)
김도희(의과대학 의학과)
이용희(과학기술대학 수학과)
장상훈(과학기술대학 수학과)
최수아(음악·예술대학 디자인학부)
김철(SW융합대학 컴퓨터학과)

서순필
장승준(과학기술대학 수학과)
한관영(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신소재공학과등문일동
최태생(의과대학 의예과)
김문기(사범대학 교학행정팀)
윤석현(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강화영(예술대학 미술학부)
김지훈(예술대학 미술학부)
최용성(예술대학 미술학부)
백한승(예술대학 미술학부)
손희락(예술대학 미술학부)
신주호(예술대학 미술학부)
안태모(예술대학)
오순이(예술대학 미술학부)
이현숙(예술대학 미술학부)
정치영(예술대학 미술학부)
조희경(예술대학 미술학부)
최수웅(예술대학 문예창작과)
(주)이준시스템
김동일(기술사업화센터 행정실)
김기홍(스포츠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
박승환(과학기술대학 경영공학과)
백동현(치과대학 치의예과)
송병구(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이영애(공공·보건과학대학 공공정책학과)
정우성(총무처)
허승욱(공공·보건과학대학 환경자원경제학과)
김광진(조직재생공학연구원(천))
김정은(자유교양대학 인성교육센터)
박광현(영어영문학과 90학번)
전병영(외국어대학 글로벌한국어과)
조규연(노어노문학과 94학번)
홍은영(취창업지원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운영팀)
강영주(약학대학 약학과)
강상대(예술대학 문예창작과)
김병진(예술대학 미술학부)
김소미(의과대학 의학과)
김승연(약학대학 약학과)
김지태(스포츠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
김창현(예술대학 뉴뮤직과)
김태수(예술대학 문예창작과)
박하영(예술대학 뉴뮤직과)
안도현(예술대학 문예창작과)
유병영(예술대학 미술학부)
윤영덕(예술대학 뉴뮤직과)
이기영(예술대학 뉴뮤직과)
이윤정(약학대학 약학과)
이창희(경제무역학부 88학번)
이종현(약학대학 약학과)
임남규(의과대학 의학과)
장소영(한국베크민공의료기연구소(천))
정상희(예술대학)
조예나(입학처 입학1팀)
조완희(예술대학 미술학부)
주화준(예술대학 뉴뮤직과)
최민구(약학대학 약학과)
최용석(약학대학 약학과)

한영택(약학대학 약학과)
홍미화(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
김선형(시각디자인과 08학번)
이은주(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장일식(과학교육과 15학번)
김영재(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문태호(과학기술대학 신소재공학과)
우윤성(과학기술대학 신소재공학과)
최용석(과학기술대학 신소재공학과)
김석원(신소재공학과 18학번)
박호진(신소재공학과 18학번)
정서민(신소재공학과 18학번)
정찬이(신소재공학과 17학번)
주수현(과학기술대학 신소재공학과)
한솔(신소재공학과 19학번)
김보현
남정욱
박준서(신소재공학과 17학번)
서준
이상은
이재혁(신소재공학과 19학번)
전병철(신소재공학과 16학번)
진정따오
최문수(신소재공학과 17학번)
홍성진(신소재공학과 19학번)
<b>현물</b>
웰니스
후지필름코리아
더림
풀핏
비담은

보내주신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